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0월 18일 (제106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쁨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8주 만에 상봉이니 왜 안 그랬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처럼, 소풍 가기 전날 아이처럼 설레고 기뻤습니다. 다시 대면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꾸 되뇌게 됩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감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회 3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정이 사납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어떻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자랄 때 성장통이 있는데, 인생에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제가 8주간 영상예배를 통해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바로 '생각과 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겨내고,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방정인지라 인생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 하면 미칠 일만 생깁니다. 그러니 입방정 떨지 말고, 감사만 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코로나19도 곧 종식될 것이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지난 8월 19일 수요예배부터 온라인예배를 드린 지 꼭 두 달 만에 다시 대면예배가 재개되었다. 지난봄에도 우리는 두 달간 온라인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는 그 당시의 바람도 몇 개월 가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나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한 것이다.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은 그만큼 치열한 것임을 절절히 깨닫는 2020년이 아닐 수 없다.

"예배는 언제 다시 열릴까요?",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고 사모되는 일인 줄 이제야 깨달아요.", "교회에 나가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랐어요."

비대면 온라인예배가 지속되자 성도들의 안타까운 심정들이 전화를 타고 울려댔다. 성도들뿐 아니다. 목사님은 영상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출하셨다.

"36년간 전국과 전 세계를 돌며 설교하는 것이 내 업이었는데, 이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었는데, 이것을 못하는 내 심정은 오죽하겠니?"

너나할 것 없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의 소중함, 고귀한 자유의 가치를 새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두 달 동안 영상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감사한 깨달음이 있었다. 우리 편집팀은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여러 예배 영상을 찾아 편집하며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바쁜 일상을 지내야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기존 예배영상을 찾아 일일이 확인하고 결정하기까지 어느 설교를 내보내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은 곁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리하여 결정되었던 영상이 바뀌는 일은 다반사였다. 예배에 임박하기까지 수정하고 다시 편집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그 와중에 지난 화면들을 보며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그 화면에는 예배의 사회를 보는 장로님, 성가대원, 찬양팀, 반주팀, 율동팀, 설교하시는 목사님,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리고 예배 촬영을 하고, 자막 봉사하는 모습까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 온라인예배가 두 달여 지속되는 동안 그들의 모습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찬양을 하고 싶어도, 반주를 하고 싶어도,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설교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사님도 계시니 더 말해 무엇 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바쁘게 일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깨달음이 가슴을 울렸다. 더구나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상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구구절절이 적어서 보낸 문자들을 모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임을 가르쳐주실 때는 그동안의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는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문자를 보내주시곤 꼭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찾은 예배의 자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대박이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이게 내 양식이란다."

가르치는 자의 기쁨을 가장 최상으로 표현한 말씀이다.

인천교회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서울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던 그 예배의 자유를 이제는 간절히 바래도 가질 수 없는 때가 올 줄 어찌 알았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할 수 있음에 진정 감사해야 하리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늘의 상을 쌓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62:1~7)

남북이 결혼할 날을 기도하자!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외침에도 우리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67년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며, 우리 교회가 무려 10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몇 장로님들과 경기도 북단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늘 서울 근교에 기도원을 구상하고 있었던 터라 마땅한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동행한 한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왜 여기에 터를 잡으려고 하세요?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요?" 하며 만류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에게 "아니, 장로님, 실컷 기도해놓고 왜 의심을 합니까? 응답이 안 된다면 뭣 하러 기도합니까? 그렇게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한 것을 믿어야지요.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해줬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답이다

그럼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요.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3~24).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데, 의심하는 네 마음 때문에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때가 있을 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전3:1). 임신을 해도 열 달이 지나야 아이가 나오고, 씨를 뿌려도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막4:26~28)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고 깨는 사이 싹이 자라듯 기도는 보이지 않으나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싹으로 보이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 곧 응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압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을 여섯 바퀴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거기서 기도를 멈추니까 못 받는 겁니다. 요단강에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몸에서 진물이 나니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일곱 바퀴를 다 돌아야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 물로 인해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마음에 의심치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을 하는 것은 동트기 전이 가장 춥고, 물이 끓기 전이 가장 시끄러운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을 쳐도 시간이 되면 동은 트고 날은 밝아올 것이며, 물은 끓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은 평화통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정세나 북한의 자멸에 의한 외형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126:1~3).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大事), 곧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꿈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 소경 바디매오가 눈을 떴듯, 홍해가 순간 갈라졌듯, 마비되었던 저의 사지가 펴졌듯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바디매오뿐 아니라 그를 지켜보던 자들은 자지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이지 까무러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은 이 일의 주역이 기도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신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뿐인 동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최고의 애국자이며, 기도보다 큰 애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실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사62:2~3). 주변국가에서, 세계열강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사62:4~5)고 하십니다. 남북이 하나 된 우리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 기뻐하듯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7)는 말씀을 새겨 그 일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일,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어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북녘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상상을 하며 그날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까요.

남북이 결혼할 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울러 우리 삶도 행복과 축복과 건강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인생의 답이요, 인생의 이정표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하나님의 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문해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보잘것없으면서 남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음, 용납함에 의지하여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에게는 온유와 사랑의 배려에 인색하지 않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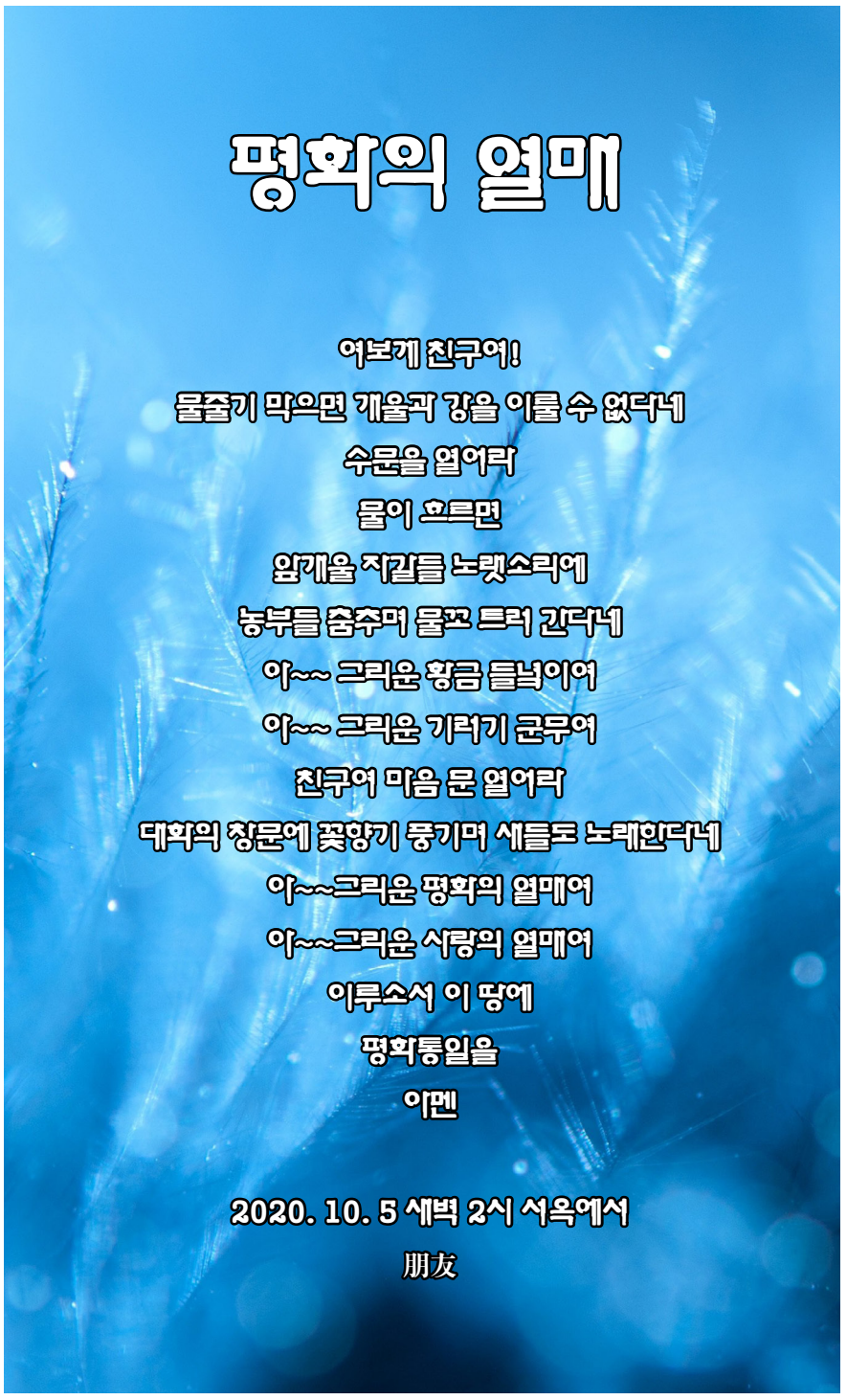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 즉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영생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복음 전도'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성경 지식이 잘 정립되어 있던 바리새파 공회 리더이고, 당시 주요 통용 언어인 로마어와 헬라어에 능숙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예비하시고 선택하시어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슬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도시 중심의 효율적 사역, 구제 선교 우선, 전방개척 선교,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선교전략을 구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족, 직장동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창조의 은혜보다 더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Dr. 이관섭 장로



:: 오늘의 메시지 ::

목사님이라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어 치밀어 오르는 화에 어쩔 줄 모를 때가 있다.

모든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박으려고 해도 못이 어딨는지 모를 때가 많고, 망치도 어디 뒀는지 깜빡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내 가슴에 못이 박힐 때가 많습니다.'라며 나는 절규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비난의 돌팔매질에 아파하다가 그 돌로 담을 쌓았다고 하신다. '바위처럼 파도와 맞서며 아파 절규하며 시퍼렇게 멍들지 마라, 모래처럼 파도를 안아주라'고 하신다. '그게 어디 쉬운 경지인가요? 공깃돌에 맞아도 이리 아픈데요. 아파 소리 지르며 끓어오르는 울화를 어찌하지 못하고 못 박혀 괴로운데 어찌 십자가에 못 박고, 어찌 담을 쌓나요? 어떻게 모래가 되나요?' 지난한 일이다.

깨어 있어야 하겠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고삐를 쥘 수가 없다. 왜 아픈지, 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늘 깨어 내 마음을 보고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담을 쌓고, 내 몸을 쳐서 모래처럼 만들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답은 기도뿐.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고, 기도는 모든 것의 충만일 터. 그 크고 모진 돌팔매를 견디시는 목사님은 요즘 말로 치면 '상남자'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발치에 미치기가 힘들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기는 힘들다. 너무 깊고 완전하신 분을 예상하기가 버거운 인생 아닌가. 내가 알고 뵙고 듣고 이마에 잔주름까지 알고 있는 목사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저 허허 웃고 넘어가시겠지.' 예측이 된다. 아무래도 예수님보다는 목사님을 더 잘 알 수밖에. 도마처럼 만져 볼 수 있으니.

'너희가 나를 닮기 바란다.'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목사님이 계신다. 부지런히 닮고 배워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쉬운가. 주께 기도하며 매달릴 뿐이다.

'목사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상담 드리면 또 답이 뻔할 것 같다. 개가 웃는 이모티콘 보내실 테지. 하하. 생각할수록 명답이다. 목회의 백문백답이시다.

이광주 목사

:: 성경에세이 ::

하라는 대로만 하게

여보게!

코로라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 그런데 이 공포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수칙이 의외로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첫째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둘째는 손을 잘 씻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과의 간격을 2m로 벌리라는 것이라네. 그러면 감염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그런데 이 간단한 수칙마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라네.

믿음의 수칙도 이와 같다네. 첫째, 믿음을 지키려면 마스크를 써야 하네. 입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 음란한 말은 금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 곧 귀신이거든. 둘째, 손을 비누로 잘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한다네(요일1:7). 원죄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청산하셨지만, 살면서 매일 짓는 자범죄는 그때 그때 씻어야 한다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휩싸여 살아서는 안 되네. 그게 거룩한 삶이지.

여보게!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고 하면, 예습과 복습을 잘하면 된다고 하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을 만나서 그런 거지."라고 말하지. 마치 마스크 쓰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도 "마스크 쓴다고 안 걸리나요?"라며 마스크를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진리가 단순하듯, 구원에 이르는 길 역시 단순하다네. 어차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전하듯,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네. 뭘 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게나. 그러면 만사가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일세.

朋友

:: 에덴으로 귀환 ::

해산의 수고

한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품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갖추었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시장에 선보입니다. 제품 하나에도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에 얼마나 큰 고통과 수고가 필요하며, 또 하나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랑이 필요할까요?

저는 서른아홉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워낙 건강 체질이라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산부가 경험하는 육체적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4~5개월 동안 입덧으로 인해 체중이 5kg이나 빠지고, 얼굴은 붉고 까슬까슬하니 형편없었습니다. 중기가 되어 상태가 괜찮아진 것 같았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흠뻑 젖어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는 산더미만큼 거대해진 배가 부대껴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지고, 후기 입덧이라고 먹는 것마다 소화시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의 부어있는 다리와 발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주물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첫째 동생은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는 '이태원 패륜녀 ㅋㅋㅋ', 이렇게 톡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진과 멘트에 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나가 너무 안 돼서 엄마가 주물러준 거야. 이 다리 봐라. 퉁퉁 부어서 얼마나 힘들겠니?" 어머니 말씀에 숙연해진 동생은 제가 어머니께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한 줄 알았답니다. 또 하루는 매일 저녁 가족 기도시간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모님 회사에 갔는데, 낑낑거리며 도착한 저를 보시고는 가만히 목 뒤를 만지시더니 땀이 흥건한 걸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온유야,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엄마도 그렇게 엄마가 되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하나님께 진통을 최대한 짧게 하고 빨리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초산임에도 7시간 만에 순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출산의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입원한 지 3시간 만에 아기가 나오는 문은 다 열렸는데, 아기는 준비가 안 되었는지 빨리 내려오지도 않는데다 머리도 커서 아기도,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아기가 힘들어하면 바로 수술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번 제왕절개를 언급하셨고, 저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였고,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온유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순산하게 해주시지 않겠냐?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순산할 거야!" 하고 응원하시며 기도해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수술해야 할 것 같다던 주치의 선생님은 아기가 내려오길 기다려주셨고, 저녁 8시 6분, 모두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튼튼한 이삭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고귀한 생명은 여인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 탄생합니다.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아야만 아름다운 한 생명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도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와 물을 전부 쏟아내시고 온몸이 찢어들 듯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지금의 신앙과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를 해산의 수고로 낳았다며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자 없다, 네 부모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외치실 때마다 항상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성도님들도 영적 자녀를 위해,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고 계신가요? 비록 그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눈물의 강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해산할 때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감당할 수 없는 환희가 밀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김온유 집사

:: 울림 있는 삶 ::

공황장애

지난겨울 딸아이가 출근 준비를 미리 한다면서 양말을 신고 두꺼운 카디건을 입고 자는 이상행동을 하더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또 며칠 후 유난히 바빴던 점심시간에 갑자기 손발이 경직되고 안면 마비가 온 것 같다더니 털썩 주저앉아 공포에 가득한 표정으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러다 아이가 죽을 것 같아 급히 응급실을 찾아 정밀검사를 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나는 극한 두려움에 주님만 찾았고, 절박한 기도와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곧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 그 후 조기 퇴근한 딸은 음식에 집착했고, 순식간에 고도비만이 되어버렸다. 우울증과 급격한 신체 변화로 대인기피증까지 왔다. 나는 공황장애를 극복한 사례들을 샅샅이 찾고 공부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 마주 보고 같이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아주었고, '공황장애는 절대로 죽지 않는 병이다.', '10년을 전후로 자연치유된다.'라며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었더니 자신감을 되찾아 딸은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휴식만 취하던 오후 시간에 요양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원장님은 개강 이래 최연소 등록자라며 칭찬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신이 난 딸은 "강의가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오늘도 14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렸어요." 하며 특유의 구김살 없는 밝은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 그리고 계속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삶의 터닝 포인트는 의외로 역경 속에서 만난다. 우리 목사님이 국내에서 핍박이 심하자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역경과 환난은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일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딸아이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활기차게 산다.

추성숙 집사

:: 교단소식 ::

2020 JC 아카데미

젊은이들의 지혜의 창고, JC아카데미가 2020년 가을 개강하였다. 오랜만에 개강하는 JC아카데미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시간이었다. 서울 청년부교육관에서 진행된 아카데미는 코로나 정국 속에서 철저한 방역수칙과 함께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인해 전처럼 많은 인원들이 함께할 수 없었지만, JC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실시간 생중계를 함으로써 전국의 지교회 및 멀리 해외 젊은이들까지도 시청하는 온라인으로 하나 된 은혜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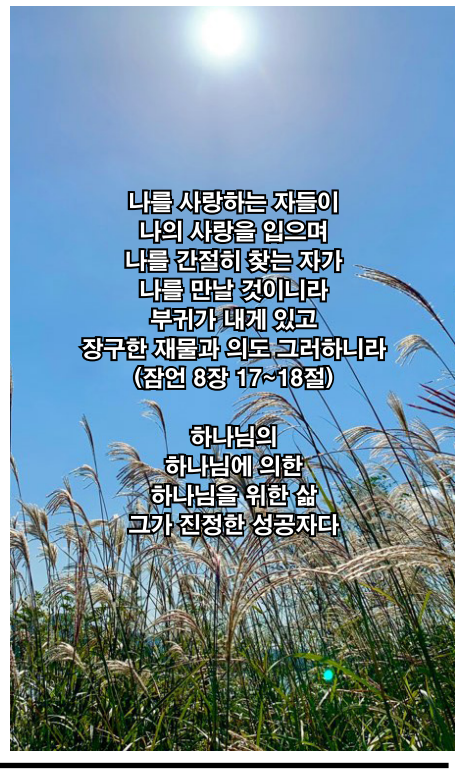
이날 강사로 단에 오르신 이시대 목사님은 지난 학기에 이어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어 나가셨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1차 선교여행 중 작성한 책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한 책 중 하나이면서 율법과 복음을 다룬 책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2:16).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여 사도바울과 유대인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분이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3:28).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5:11)

"율법은 이 땅에서 잘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율법은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일 뿐이요 구원과는 무관하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구원은 100% 예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24)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구원은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임을 강조하시며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중심 젊은이가 되길 부탁하셨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승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수중심 아카데미는 계속됩니다.

기자 송현혜